

사설

조계종에 부는 화합바람

원로의장을 두고 서로 양보를 보인 아름다운 모습과 종회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는 고무적인 소식에 모든 불자들이 찬탄하고 또 위안을 받았다. 조계종 내부에 독버섯처럼 그 화합의 틀을 깨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일종의 감투를 둘러싼 암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일소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실로 불교 종단 내부에서 감투를 둘러싼 알력과 불화가 노출된다는 것은 단순한 잡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출가하였다는 스님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때마다 불교의 진리성 자체가 의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스님들 사이에는 "중 벼슬은 닭 벼슬만도 못한 것이다"는 말이 있다. 진정 그러해야 한다. 수행을 위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어찌 세속적인 일에 얽히는 것을 달가워 할 수 있던 말인가? 이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일들로 여겨지지 않는 자체가 조계종 종단이 그 청정성과 화합성을 상실하였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 자체의 사회적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세속적 욕망을 초탈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불교 승단의

본질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교 종단 내의 감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신 종산 스님과 법집 스님, 그리고 지하스님과 청화 스님께 진심에서 우러난 큰 찬탄을 보낸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종단내의 소임을 둘러싼 일들이 이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스님들이 이번 일을 찬탄하기에 앞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일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오욕학의 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속적 삶과는 다른 스님들의 청정한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불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큰 포교의 수단도 바로 그러한 스님들의 청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스님들이 어우러져 이루는 승단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아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 불교오류 고치자

조계종 포교원이 2년여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에 불교와 관련해 잘못된 항목이 무려 39군데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종교를 서구의 종교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종교활동을 예로 들면서 불교신자인 어머니를 배타적 인물로 등장시켜 기독교인 아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하면 불교용어 해설의 오류, 심지어는 연대와 인명이 잘못 표기된 곳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도덕과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오류는 무려 50%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교과서의 편향, 왜곡된 항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쓰일 교과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불교에서 지적한 불교관련 오류항목에 대한 철저

한 검토와 시정이 있기를 촉구한다.

불교는 이 땅에서 1600여년간 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일구어 온 종교다. 이러한 불교와 관련해 교과서 오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부에 대한 신뢰에도 크게 손상을 입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의 종교관련 내용 편향에 있어서 종교적 편견이나 무지한 인사의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서술을 위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해 달라는 주문이 아니다. 오로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교과서의 생명이며, 청소년의 바르고 편견없는 인성형성에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계 또한 교과서의 불교관련 항목은 불교에 대한 인식과 명명에 관련한 문제로서 간과하거나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교과서의 불교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 국민 의식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교육부와 불교계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다.

승복관장 가사원 추진

조계종 교육원 16일 '복식 세미나'서 구체화

승려의제인 가사와 장삼의 제작·공급 및 종단지정 승복점을 관리·감독할 조계종 가사원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승복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 종단차원에서 승복 유통을 관장할 사업팀 구성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종단차원의 승복관리 방안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가 16일 오후 1시 조계사 총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승복복식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지난 6~7월 전국 598명(주지 254명, 소임자 74명, 신승 97명, 학인 165명, 무응답 8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복에 관한 의견 및 유통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가 승복의 제작과 유통의 상업화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종단차원에서 유통관리에 나서야 한다(87.8%)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승복이 상품화되면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우며 △승복의 악용 및 남용 △치부의 수단 △승가의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스님들은 승복을 3~5벌(59.6%) 6~10벌(30.1%) 1~2벌(8.2%)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승복마련 방법은 승복점 구입(56.7%), 절에서 단체구입(15.4%) 신도보시(13.8%), 절에서 직접 만든다(7.1%) 은사나 도반에게 물려받는다(7.0%)고 응답했다.

스님들은 승복구입 이유로는 낡고 헤어져서(73.1%), 은사나 신도를 보시(24.4%), 행사참석을 위해서(1.4%)라고 답했다. 그러나 승복이 비싸고(92.8%), 승복

에 갖든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76.4%), 승복의 소재나 색상, 모양 등에 통일성이 없다(79.4%)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승복점의 승복제작에 대해서도 스님들은 88.5%가 여법하게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승복점들이 승복을 제작하며 고급화 유도(36.4%), 의도적 변용(28.4%), 유행화(13.6%)가 심하다고 밝혀 승복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승복유통의 개선방향으로 응답자의 87.8%가 종단의 관리하에 승복규정 마련 후 승복점 지정, 종단의 승복점 직영운영, 종단의 승복 무상지급, 규정에 맞게 개인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승복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가사와 장삼의 크기를 위해서(1.4%)라고 답했다. 그러나 승복이 비싸고(92.8%), 승복

상월 대조사전 낙성법회 성황

천태종 구인사 사부대중 5만여명 동참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5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사선양의 상징인 종창조 상월대조사 존상 봉안과 함께 대조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오전 6시 상월 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식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대조사전 낙성법회식이 거행됐다. 육법공양과 헌화 헌향에 이어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가 봉독됐고 재무부장 남경도재스님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정착시킨 수행종풍으로 종단의 교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성하여 오늘의 대종단으로 발전하였으니 우리 불교의 활력이요 서광"이라 칭찬하고 "대조사전 권위의 공덕으로 종단이 더욱더 광범을 발하고 종도대중을 비롯 세계 인류의 삼엄이 청정해지기를 축원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도 개식사에서 "조사전 건립이 9년에 공사끝에 역사적인

낙성을 보게되어 벅찬 감격과 환희를 금치 못한다"며 "대조사전 낙성을 계기로 조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화를 전개해 천태신앙을 꽃피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택 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지성 총무부장 등 각 종단 대표들과 문화관광부 김한길 장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김기재 김태호 송광호 국회 의원과 도출인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일본 천태종 후지코겐 종무총장, 미얀마 불교종단협의회 바단타 구마라 대표단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했다.

무형문화재 74호인 대목장 신응수씨가 도편수를 맡아 건립한 대조사전은 총건평 167평에 3층 다포집으로, 높이는 국내 목조건물로는 최고인 27m이다. 조사전에 쓰인 목재는 태백산 적송으로 수령 300년 이상된 목재 50만대가 사용됐으며, 특히 일체 쇠못을 쓰지않고 전체를 나무로 짜맞춰 정교하게 건립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법당하나 없고...

조계종 148회 중앙종회 주요 답변

13일 속개한 조계종 148회 중앙종회에는 11명의 종회의원이 26건의 총책질의를 했다. 146, 147회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총회사무처가 2일 배포한 '총책 질의서/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총무원의 bm 이사 참여 검토, '사찰 예산·회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총무원은 우담비라에 대한 견해, 민영교도소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대, 보충 질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 쟁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불교TV 정상화 대책

bfn 정상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대책을 묻는 법안스님의 질의에 대해 문화부는 "(bfn과) 종단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원 집행부의 이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이사 출연금이 2억원이나 이전의 종단 지분이 있어 실제 새로 출연할 액수는 1억 77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금융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장적스님의 질의에 대해 재무부는 연말까지 '사찰 예산·회계법'을 마련, 내년에 시행할

“총무원 불교TV 이사참여 하겠다” “사찰회계법 제정 금융사고 예방”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재보고서(일일, 월 정산) 작성, 통장 도장의 책임관리자 선정, 잔고 증명서 발급확인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시민단체 지원 방안

불교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는 법안스님의 질의에 사회부는 "지원법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는 것이 좋

다"고 판단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영교도소 대처 방안

종양승가대 이전 불사에 따른 종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신축을 통한 교도소 운영이나 시설 위탁운영은 힘든 여건이라는 사회부의 입장이다. 사회부는 "즉각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교화인력의 확보를 위해 교화위원들과 불자교정인을 결집하여 포교원 산하에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분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500명 수용시설 건립시 3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담비라에 대한 종단 견해

우담비라에 대한 종단의 견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협각스님의 질의에 대해 호법부는 "우담비라는 경전에 3000년만에 한번 피는 전설 속의 꽃"이라며 "신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법부는 이어 "실체성에 대한 판단과 종단 공식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기획특집 불자만을 위한 시계 우리가 만든다!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나와...

전 직원이 불자들만으로 구성된 업체에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연꽃 불자시계가 나와 화제다. 제조에서부터 판매,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아날도 바시니(arnaldo basini)社.

연꽃 불자시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저렴한 가격과 연말연시를 맞이한 최고의 선물용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달라 스포츠 레저용 시계'와 '수암옥 108염주'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이자 3개월 할부도 가능하게 했다.

연꽃불자시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계밴드에는 위쪽으로 광명 진언을 아래쪽에는 소원 성취진언을 새겨 넣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늘 가까이 신비로운 연꽃무늬 하늘을 뜻하는 음자, 13개의 보석(큐빅)으로 꾸민 시계 문자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벽돌로 문질러도 흠집이 생기지 않는 강한 경도의 사파이어 유리화 첨단 소재인 지르코늄으로 만들어진 24각 베젤은 오래도록 견고하고 화려한 멋을 자랑한다. 생활방수는 물론 특수IPG 도금으로 처리된 수명이 오래가고 스위스 무브먼트로 이루어진 연꽃불자시계는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용두(시간조정)는 18K 순금 금융두로 제작하여 품위를 더했으며 시계 뒷면에는 만자를 새겨넣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싶은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시계이다. 전 직원이 불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불자기업인 만큼 연꽃불자시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는 불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 : 아이템 콜 080-323-4444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9-24 정명 빌딩 4층